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입당감사 심령 부흥성회 열린다.

17일(수) - 19일 (금), 청지기 수련회도 함께 열린다.

우리교회 9년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심령대부흥성회가 오는 17일(수), 18일(목), 19일(금) 밤7시에 열리게 된다. '오직 주께만 영광'이라는 주제 하에 강사는 전 종신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의환 목사다. 김목사는 미국 칼빈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템플 대학교(Ph. D) 등에서 수학했고 종신대 교수, 라성 한인교회 담임 그리고 종신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18일(목), 19일(금) 새벽5시에는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청지기 수련회가 열린다. 18일에는 찬양대원 그리고 19일에는 전도회와 선교회원 수련회로 모인다. 교회학교 교사나 교구일꾼 수련회는 전년도 집중적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청지기 수련회에서는 하지 않게 된다.

오늘 2001년도 순결 서약식을 거행한다. -13세이상 미혼대상, 잔양예배시-

오늘 저녁 찬양 예배시에 순결 서약식이 거행된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또한 순결 서약자에게는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순결 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7년째 매년 첫 주에 13세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약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현재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성경통독 사경회 개최 -1월23일~24일 이틀간-

다가오는 설 연휴를 뜻깊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이번 구정 연휴 기간 중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성경통독 사경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성경을 통독하지 못한 성도와 또 성경을 읽고 싶으나 직장과 사업 때문에 성경을 읽을 겨를이 없었던 성도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것이다. 1월23일 24일 양일간에 실시되며 장소는 미스바홀(102호)이다. 회비는 1만원이며 우리 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타교인도 등록이 가능하며 접수는 사무국에서 받는다.



새해 인사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 당회원, 교역자 일동



은퇴 권사님들 - 기도의 무릎이 쉼 없기를



은퇴장로님들 - '내가 많은 것을 말하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안식년을 맞으신 장로님 - 9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로장로 - 임광식 이용선
은퇴장로 - 이남호
은퇴권사
강정옥 권영옥 권영자 권임정 김남순 김동호
김명숙 김묘순 김병숙 김병려 김선미 김옥향
김용숙 김은애 김인식 김연정 김중리 김중복
김진영 김현주 노영숙 노인덕 박근옥 박순봉
박순옥 박이준 박종민 박정강 방계운 배영애
백영희 송갑순 송인순 송영강 심계를 안순이
안연심 양숙란 양태영 여옥기 원복순 유후자
윤순탄 윤영자 이민화 이순녀 이영숙 이옥녀
이옥현 이점숙 이정옥 장대방 장에희 진인화
전철금 전춘자 정복순 정복순 조명녀 조봉환
조향연 조옥섬 조옥순 차복녀 천병희 최경애
최난수 최순애 최 완 최정숙 최진금 한정석
함송현 허인숙



승구영신예배 -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신년 메시지



❖ ❖ ❖ ❖ ❖ ❖
이종운 목사

(이 글은 2001년 송구영신 예배 시 선포한 메시지를 발췌한 것이다)

우리는 밝아오는 새해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맞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하셨으니 믿고 감사하며 새 출발하자.

I.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의 수가 몇 명이었던지 알 수 없다. 한 두 사람의 쓸 것을 채운다면 그리 문제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다. 당신 자신만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의식주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이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심지어 병든 이에겐 건강이 필요하고 무지한 이에겐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자녀가 없는 이에겐 자식이 필요하고 직장이 없는 이에겐 일터가 필요하다. 그릇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날라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많은 필요를 채워 주신다. 우리의 영적 필요는 일시적인 필요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지은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 내면적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독수리 창공을 날듯 새 힘을 얻고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시고 영으로 오시어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신다. 고통 중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겐 희망이 필요하며 무거운 짐 진자에는 짐을 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죄를 이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믿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필요하다 1월 첫 시간부터 12월 끝 날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할 필요만 있는 존재다. 그러나 염려치 말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은 큰 부를 누리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너무 가난해서 남을 시기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유혹에 빠질 염려는 없는가? 당신은 너무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가? 당신은 기쁨을 유지하고 싶은가? 슬픔 중에서 강해지고 싶은가? 살 필요가 있는가 하면 죽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II. 하나님은 나의 위대한 돕는 자시다

누구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실까? 바울의 하나님이라 했다. 모든 위대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바울의 하나님은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 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서울교회의 필요를 채우셨다. 우리가 만일 기적이 일어난 세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큰 기적의 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법을 거스리지 않은 채 기적 같은 열매(결과)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바울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바울의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면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많고 커도 채워질 줄로 믿는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무소부재 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한밤중에 혹은 낮에 혹은 새벽에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놀랄게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필요를 채우신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충분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III.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가득 채우시리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으로 대접을 한 후 '하나님이 비를 그 지면에 내리는 날 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상 17:9-14)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채워져야 할 빈 항아리만 가져다 놓으면 된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당신의 소원을 크게 하라.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은 채우실 것이다. 아무 것도 소원치 않으면 아무 것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용서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신다. 햇빛은 이가 입을 웃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헤어진 옷을 주시던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입혀 주신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그에게 좋은 옷이 입혀졌듯이 우리도 주님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명예도, 재물도, 건강도 더 크고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주신다. 위로를 원하는가? 주님께 구하라.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채우실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듯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자연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그의 은혜 속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 -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신 자비. 사랑. 권능. 친절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한 중에서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서 채우신다. 왕이 거지에게 무엇을 준다면 왕처럼 크게 줄 것이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채워 주신다.

결론 - 새해에 당신의 소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오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공중의 새나 들에 흰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그들은 심지어 거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모세나 다른 어떤 훌륭한 인물에게 찾아가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 2001년 이 한해는 빌4:19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자.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라. 그리하여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자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 하도록 영광을 돌릴 지어다. 아멘」

2001년 교회 주요행사

실시일	행 사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송구영신예배 7일 / 신년감사예배 7일 / 순결서약식 17일-18일 / 정치기 수련회 17일-19일 / 입당감사부흥성회 23일-24일 / 성경통독사경회 (구약) 27일 / 자선음악회 교회학교별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일 / 입당감사미술전 (2개월) 비전2020 운동 (매월) 22일 / 서울신학 심포지움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집례 9일 /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6월 11일까지 매주월요일) 9일 / 제9학기 성경대학 (6월 11일까지) 26일 / 농어촌 교회지도자 초청잔치 28일 /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일 / 교사교육 및 연합 기도회 19일 / 탈북난민돕기 시민 걷기대회 26일 / 입당감사 찬양제 27일 / 공동의회 (장로선거)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찬양대원 세미나 6일-15일 / 제10차 캠프 세미나 6일-25일 / 2001 흥해작전 6일 / 사랑의 헌혈 및 장기기증식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백주감사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 2001 농촌 전도단 파송 (8월 9일까지) 13일 / 단기 선교팀 파송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 제20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11월 12일 까지 매주 일요일) 3일 / 제10학기 서울 성경대학 19일-21일 / 2001 이웃돕기 마자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 2001 사명자 대회 (50일간 기도, 전도작전) 19일 / 교사 교육 및 연합 기도회 28일 / 성경암송대회(예선)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 / 성경암송대회 (본선) 11일 / 중,고, 대, 청년부 연합 찬양예배 18일 /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10주년 감사 찬양 예배 25일 /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10주년 감사 예배 및 성찬식 25일 / 임직식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일 / 서리집사, 교구 일꾼 임명 9일, 12일 / 찬양대원임명 16일 / 교사 임명 24일 / 찬양예배 및 축하의 밤 25일 / 성탄절 새벽예배, 축하예배

금년도 우리 교회 행사 일정이 확정 됐다.예년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등 절기에배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각종 수련회 및 세미나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것이다.

‘흥해작전’, ‘비전2020운동’, 등 해마다 개최되는 행사들도 좀더 발전적인 기획과 실제적인 운영을 추구, 내실을 다질 것이다.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5월 27일에 열리며 매월 첫 주 찬양예배는 각 부서가 주관하는 헌신예배로 드린다. 월별 헌신예배주관 부서는 다음 도표와 같다. 또 매달 마지막 주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가지며 학습·세례식은 격월로 거행된다.

월	헌신예배주관부서
2	교회학교 교사
3	여전도회 연합회
4	남선교회 연합회
5	중등부
6	고등부
9	대학부
10	청년부
11	찬양대

위원회에 듣는다 - 예배위원회

새 예배당 시대를 향도하는 예배위원으로...

최중시 장로 (10교구)

서울교회는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새 예배당 시대를 맞이하였다. 9년을 하루같이 교회설립부터 대치동 새 예배당 입당까지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해주셨고 서울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며 또 많은 복음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새 환경과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2001년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회로 극대화하고 이 시대를 향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예배의 모범과 다양성으로 말씀중심의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지침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가족중심 (1부예배) 일반성도중심 (2부예배) 청년중심 (3부예배)의 예배로 분류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세대간의 화합과 부흥의 틀이 형성됨으로 효과적인 교회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로 뜻을 모아야 될 줄 안

다. 처음 시작된 예배와 성경공부시간이 아직 익숙지 않아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도와야 할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므로 예배와 말씀공부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숙지하여 안내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고 교회를 처음 찾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정성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별도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섬기는 종의 모습을 찾아 새 예배당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된 서울교회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도울 성도들의 자원을 기다린다. (예배안내 / 헌금위원) 그리고 섬 없는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린다.

전도위원회

만민에게 전도 하여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왕경래 장로 (11교구)

벽감 감격으로 새 예배당에 입당하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 시대를 맞이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은 해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거듭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교인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확산되어 이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도위원회는 다음의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겠습니다.

- 1) 성경대학에 전도학교를 개설하여 전도대원을 질적으로 양성-훈련하여 70인 전도대원을 늘리고 교회주변 아파트 단지 축호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2) 교회내 각 부서가 전도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부서가 최대한으로 전도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병원, 교도소, 노방전도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 3) 태신자 전도운동 및 이슬비 전도엽서 보내기를 계속하고 초청주일 정하여 결실을 맺겠습니다.
- 4) 수요일부 예배 후, 금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노방 전도대를 조직 노방전도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5) 교회가 세운 전도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농어촌100교회 운동 사후관리, 육사 세례식, 농어촌 전도봉사대 파송 등을 통해 복음을 확산시키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전도위원회조직

지도: 이규정 목사 위원장: 왕경래 장로
서기: 최중시 장로 회 계: 최학인 장로
위원: 김배기 장로, 김영운 장로, 이병승 장로

남선교회

선교회	회 장	부 회 장
별빛 (30-39)	박태규 집사	성준모 집사
인드레 (40-44)	김동연 집사	유형식 집사
베드로 (45-49)	최양진 집사	양인수 집사
바울 (50-54)	유을환 집사	이남정 집사
엘리아 (55-59)	임옥규 집사	최용진 집사
모세 (60-64)	이보우 집사	조성일 집사
아브라함 (65세이상)	임광직 장로	김진호 집사

여전도회

선교회	회 장	부 회 장
도모가 (30-39)	박환옥 집사	박민숙 집사
푸더야 (40-44)	김정련 집사	김혜련 집사
피 비 (45-49)	이영자 집사	김영식 집사
바리야 (50-54)	이영숙 집사	김애련 집사
이스라엘 (55-59)	강희자 집사	송두신 집사
한나 (60-64)	이순애 집사	이귀희 집사
사라 (65세이상)	김경희 집사	전연희 집사

우리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용석범 목사 (중등부)

2001년은 여러 모양으로 새로운 것이 많이 있다. 공과공부시간에는 소 요리문답으로 기독교 전통의 신앙고백을 공부한다.

2001년에 중등부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중심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중심주제였고(막1:15), 그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이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교육명령을 따르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교회이해를 관련시킬 때, 교육의 방향은 다음의 세 차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이다. 중등부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비전을 갖고 이에 동참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공동체적 차원'이다. 중등부는 학생들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의 본질과 과제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

님 나라의 문화를 자신 안에 내면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신앙 공동체의 영성 속에 자리한 다양한 은사를

이해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이다. 하나님 나라는 세계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힘이다.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와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헌신과 참여는 사회구조 속에서 기독교적 역사 인식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는 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사회(가정, 직장, 학교 등)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생태계)과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교육하는 일이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학생들이 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청부, 1부 성경공부반 개설

1부 예배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대-청부 회원들을 위해 Ⅲ부 예배 후 모임을 갖는 대-청부 성경공부반이 1부 예배 후에도 개설된다. 이들을 위한 장소는 헵시바 홀(502호)이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표

부서	일자	장소
유치부	2.26-2.27	교회
유년부	2.26-2.27	교회
초등부	2.26-2.27	교회
중등부	1.8-1.10	광성 훈련원
고등부	2.26-2.28	교회
대학부	2.19-2.22	교회
청년부	2.28-3.1	강화성광 기도원
사랑부	3.1	교회

교육1국 교사 수련회

교육1국은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의 주제로 섬김과 헌신을 다짐하는 신년 교사 수련회를 1.12(금)-1.13(토) 701호에서 실시한다. 강사는 이종윤 목사, 변규정 목사, 각부 지도 교역자이다.

동정

- 백영희 권사 (11교구) 앞치마 100벌 기증
- 정종택 집사, 홍순덕 집사(2교구)
- 강혜신 집사 (4교구) 피아노1대 기증
- 신용식 집사, 김신영 집사 (10교구) 성경합본 50권 기증
- 김승환, 권정숙 성도 (8교구) 특너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오광환 집사, 이안순 집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수화교실 오늘 개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귀와 입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귀와 입이 있으나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웃인 청각 장애인이다. 의사소통의 불편과 정보의 단절로 인한 고통과 소외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아인과 난청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수화이다. 서울교회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예배다부를 개설하고 수화교실을 오늘 개강하게 되었다.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1시부터 90분간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되는 수화교실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일시: 매주일 오후1시~2시30분
장소: 603호(예바다부)
강사: 홍유미(한국 밀알선교단 간사)
교재: 밀알수화(한국 밀알선교단 출판부)

교사대학 수료자

권순단 김경옥 김명숙 김명심 김미향 김세채 김진희 김순자 김양숙 김운자 김은희 김재술 김정희 김찬진 김태기 김현영 김현숙 김혜연 나옥녀 박두영 박두호 박명석 박병수 박정수 박철훈 백혜숙 서순영 송두심 송인권 신동기 신정순 심은영 오광환 왕경래 왕원희 우상태 유근중 유율상 윤은식 윤찬오 이강인 이경구 이경희 이계홍 이남북 이남성 이복규 이양철 이영기 이영숙 이영자 이영조 이영희 이운진 이은옥 임옥균 임상현 임희준 장명순 장양일 전용순 전정숙 정병무 정세형 정을순 조정식 최영란 최용걸 최일준 화차순 최형열 탁경준 하영수 홍성주 홍혜란 김대웅 이성애 이동만 김시환 민마리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월17일부터 열리는 심령부흥성회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1년 계획한 것 성취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